

# “과거세에도 남 속이고 업신 여겨”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31)

부처님만 믿고 악업 쌓은 천타 비구

부처님께서 구사미국에 계셨다. 그때에 천타라는 장로가 있었다. 그는 성질이 나빠서 사람들은 그에게 말조차 걸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에게 진심어린 충고와 고언을 베풀었지만 천타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구들이 부처님께 천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 옛날이야기를 해주셨다.

옛날 어떤 장자의 아들에게 아마유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성질이 흉악했다. 어느 날 장자의 아들은 여러 바라문의 아들들과 함께 동산에 놀러 갔는데, 파란 하인들은 모두 동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아마유는 동산 문 밖에서 다른 주인을 따라온 하인들을 때렸다. 아마유에게 매를 맞은 다른 하인들은 저마다 자기 주인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바라문의 아들들이 모두 나와서 아마유를 꾸짖었다. 그러나 아마유는 고분고분 야단을 맞지 않고 바라문의 아들들에게 오히려 대들었다. “당신들 말 따위는 따르지 않겠소. 나는 우리 주인인신 도련님 말씀만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시 다른 하인들을 못살게 굴었다. 그러자 다시 하인들의 주인들이 아마유의 주인에게 알렸다. 아마유 주인은 나면서부터 천안(天眼)을 얻은 터라 이미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아마유의 주인이 아마유를 꾸짖자 아마유는 다른 하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장자 아들이 바로 지금의 내 몸이다. 그때의 아마유는 바로 지금의 천타 비구이다.”

또 과거 세상에 불로해라는 대학자인 바라문이 있었다. 그는 국왕의 스승이 되어서 동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집에 사는 가라가라는 하인에게 여러 동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일을 시키곤 했다. 이 하인은 설법을 한번 들으면 모두 기억할 만큼 영리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하인이 여러 동자들과 조그만 원한을 맺게 되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

“나는 불로해 바라문의 아들이며 이름은 아야달라 한다.”

또 그 나라 국왕의 스승인 바라문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바로 바라내국의 왕자인 불로해의 아들입니다. 큰 스승에게 나아가 바라문의 법을 배우고자 일부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승은 대답했다.

“그렇게 하여라.”

이 하인이 원래 머리가 총명하였고, 설법도 모두 이전에 한 번 들었던 내용을 다시 거듭 듣게 되는 것이라 들으면 모두 기억했다. 스승은 기뻐하며 자신의 문도 500명의 동자들을 가르치게 했다. “네가 나를 대신하여 가르쳐 보아라. 나는 왕가에 불일이 있다.”

이 스승 바라문에게는 아들이 없고 오직 딸이 하나 있었다.

“아야달다야, 내가 이제 내 딸을 너와 혼인시키려 하니, 너는 이제 네 나라로 돌아가지 말고 이 나라에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문은 바로 아야달다를 사위로 들였고 아야달다는 그 집안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아야달다는 음식이 좋지 않다는 등 투정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게 시작했다. 아내는 그를 매우 공경하였기에 남편의 심기를 편하게 하려 했으나 도무지 그의 비위를 맞출 수가 없었다. 그때 불로해 바라문이 떠난 하인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소문을 들은 불로해는 생각했다.

“나의 하인 가라가라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 있으니 가서 붙잡아 오거나 아니면 다른 하인이라도 얻어 와야겠다.”



삽화 · 강병호

불로해 바라문은 즉시 그 하인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마침 그때 아야달다는 여러 문도들과 함께 동산으로 놀러 가고 있었는데, 중도에서 그의 본래 주인을 만나게 되자 놀랍고 두려웠다.

아야달다는 옛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저는 이 나라로 와서 스승에게 주인님이 바로 저의 아버님이라고 말하고, 이 나라 국사이신 대학자 바라문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스승께서는 그의 딸을 아내로 주셨습니다. 원컨대 어르신께서는 오늘 저의 일을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다른 하인을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불로해는 이렇게 대답했다.

“실제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어찌 여러 말을 하는가? 무슨 방법을 쓰든 빨리 보내기만 하여라.”

아야달다는 옛 주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돌아와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의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기뻐하면서 갖가지 음식을 마련하여 식사를 대접했다. 식사가 끝나고 잠시

한가한 때에 그의 아내는 불로해에게 여쭙었다.

“제가 남편 아야달다를 받들어 섬기려 애를 쓰지만 공양이 늘 입맛에 맞지 않아요. 이전에 집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음식을 먹었는지 가르쳐 주시면, 친가에서 음식 만들던 방법대로 그를 위한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불로해는 속으로 성을 내면서 생각했다.

“이런 놈을 보게나. 이놈의 자식이 남의 집 귀한 여식을 괴롭히는구나.”

그리고 불로해는 그 여인에게 말했다.

“내가 떠날 때에 너에게 계승을 가르쳐 주리니, 너는 이 계승을 외워라.”

‘아버지 없는 놈이 남의 나라에서 /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 거친 음식을 언제나 먹던 놈이 / 먹는 것도 감지하지, 무엇을 꺼리느냐.’

“이제 너에게 이 계승을 줄 터이니 만약 그가 또 음식 타박을 하면서 성을 내거든, 슬쩍 한쪽으로

물러나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그가 들을 수 있게 이 계승을 외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가르친 뒤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아야달다는 주인이 떠난 뒤에 매번 밤 때면 되던 음식 타박을 하며 성을 내었다. 아내가 남편의 곁에서 시험삼아 그 계승을 외웠다. 그러자 남편은 이 계승을 듣고 나서 언짢은 마음이 들어서 생각했다. “저놈의 늙은이가 나의 어두운 과거를 들추어내는구나.”

그래서 아야달다는 이때부터 언제나 부드러운 말만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그 비밀을 발설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바라내성에 살던 불로해 바라문이 바로 나이고, 그때의 하인 가라가라는 바로 지금의 천타 비구인데, 그는 그때에 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었다. 그러더니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나의 세력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구나.” (〈마하승가론〉 제8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사>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㉓



### 종교가 다른 모녀

엄마의 기도, 딸의 기도

모처럼 집에서 쉬게 되어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만나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다. 여가게 축 늘어진 친구의 모습을 한눈에 근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신발도 벗기도 전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친구의 근심은 오래된 것이었다.

친구는 6남매를 두었는데 그중 막내인 딸은 서른이 넘어서 미국에 있는 회사를 다니게 되었다. 좋은 회사를 다니게 된 막내딸은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딸에게 정전벽력같은 일이 생긴 것이다. 위암이었다. 벌써 1년 전 일이라고 한다.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족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친구는 많이 힘들었다. 막내딸의 아픈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친구인 나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온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음식조차 넘기지 못해, 어쩌면 좋으냐?” 뭐라 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친구는 이제 밤마다 부처님께 오직 기도할 뿐이라고 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나도 부모인자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 남일 같지 않았다. 아프고 답답했다. 친구는 기도하는 일이 유일한 낙이자 희

### 타인의 종교 인정해야 내 종교 존재

### 나를 괴롭히는 건 타인 아닌 내 마음

망이라고 했다. 기도를 하다 마음이 복잡해 오르면 스님을 불독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픈 딸은 미국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 지금도 막내딸은 엄마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엄마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주길 바란다 한다. 친구는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나는 딸의 종교를 인정해 주라고 했다. 누구의 종교도 타인이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마의 종교가 있듯이 딸의 종교도 선택의 권리가 있는 것이니 집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득했다. 종교가 달라도 서로 인정해야하고 기도의 용어가 다를 뿐 그 마음이 다르지 않음이나 서로의 기도가 간절하고 또 간절하다면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몸이 어디에 있던 앉으나 서나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 하며 분별된 생각만 지우면 교회건 절이건 또 집이건 밖이건 상관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지금은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열심히 기도 하라고 했다.

친구는 딸도 부처님께 기도한다면 기도의 힘이 더욱 커질 것 같는데 그럴 것 없어서 안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이야기 해주시기도 했지만 딸은 ‘엄마! 교회에서도 그런 기적을 이루는 일들이 많으니 그런 말은 하지 마라.’며 엄마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한단다. 친구

는 막내딸의 투병도 힘든 일인데 종교로 인해 딸이 이와 사이가 벌어지는 것도 가슴아파했다. 나는 울고 있는 친구에게 다시 한 번 말했다. 딸아이의 종교를 인정해 주라고. 그래야 내 종교도 지킬 수 있다고.

### 부부 싸움 후 지옥과 극락

살면서 늘 세월이 빠르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했었지만, 요즘 들어 새삼 실감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지 때 순간이 소중한 지나가는 시간이 아깝기만 하다.

며칠 전 남편과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서로의 생각이 달라 다투었다.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게 됐다. 한 동안 우리는 말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답답한 시간이었다.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회스러웠지만 이미 없지 않은 물이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후회스럽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겨 시간을 보냈다. 친솔의 나이에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저녁시간 TV를 끄고 내가 먼저 남편을 향해 절을 했다. 결혼식 때 맞절을 하고 난 이후 ‘절’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았다. 절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남편은 평소와 같이 앉은 행동을 놀라면서 무슨 일이라고 내게 물었다. 딸다툼에 대한 사과의 뜻이랑이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이라 생각할 때 이런 시간은 너무나 의미 없는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진정 나의 생각이나 언행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였다. 그렇게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그 순간, 극락이 따로 없었다. 그토록 답답하고 지옥 같았던 세상이 한 순간 극락으로 변했다.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었다. 타인의 말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앞으로 남편뿐 아니라 누구와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했다. 내 마음부터 버리기로. 그리고 그런 생각을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서로를 지옥에 가두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말하고 나니 내가 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뻐했다. 그러자 비늘 끝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남편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열리고 따뜻해졌다. 비가 온 뒤의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했던가. 서로의 마음을 보게 된 우리는 각자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다. 이제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니 더욱 이렇게 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기에 더욱 살아있는 동안 진지하게 살 일이라 생각했다. 남편과 나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후회스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

##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변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고주파, 방수전구(정품) (범당용, 외곽용)  
 > 방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인당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탈피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  
 >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에 적합

**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